



굴비



정 건 영

- 1981 대전 산
- 1983 연세대 국문학과 졸업
- 1981 소설문학 신인상에
"임진강"으로 등단
- 주요작품 - 단편 「사슴」 「승개」
「골짜기」 「월동기」
중편 「반 그네 소리」
장편 「북해의 뽕나무」 등

새 벽안개가 풀리면서 자태를 내보이는 북한산성의 모습은 재미 있습니다. 허물어진 성벽을 허리에 두르고 온갖 풍상을 겪은 듯 마모된 바위산이 솟아 그 고색창연한 맛이 마치 우리 할아버지 얼굴처럼 과묵하고 고루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학봉아, 학교 늦을라. 뭘 쳐다보며 꾸물거려.”

어머니의 재촉에 수저질을 빨리 합니다. 어머니가 북한산성이 마주 보이게 식당을 설계한 것은 썩 잘한 일입니다. 어머니는 마주 앉아 굴비를 뜯어 뼈를 추려 작은 접시에 옮겨 줍니다. 아침부터 역한 비린내를 풍기더니, 또 짠 굴비가 뵙니다. 굴비의 거무적직한 겉모습이 할아버지의 피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굴비에서 시체 냄새가 나나 뵙니다. 어머니는 굴비를 세상에 없는 반찬인 양 내 앞으로만 밀어 놓습니다. 고3이라고 특별배려인 셈이죠. 가만히 보면 앞에 앉은 아버지도 이 굴비를 집어 갈 때는 내 눈치를 보는 듯합니다. 나는 썩는 생선 냄새에 그만 골이 다 아플 지경입니다. 새벽 입맛도 깔깔한데 차라리 우동라면이나 스프나 한 그릇 후루룩 마시고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여보, 아버지도 굴비 좋아하시지?”

그러자, 어머니가 좀 어색하게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여부가 있어요? 큰맘 먹고 사본 영광 굴빈데... 학봉이 너 한눈 팔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야 돼.”

어머니가 아버지 질문에 채 말끝을 정리하지 않고 나를 단답합니다. 난 먹던 밥에 보리차를 부어 훌훌 우겨 넣고 치즈 한 토막을 입에 우물거리며 일어섭니다. 그제야 아버지의 젓가락이 굴비 뜯어진 것 서너개를 바쁘게 집어갑니다. 그리고 못내 아쉬운 듯 남겨진 굴비를 보며 일어서고 맙니다.

내가 책가방을 챙기는 동안, 마당에는 벌써 아버지가 차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나는 이삼분 더 지체해도 좋습니다. 실내가 훈훈해지면 타도록 아버지가 늘 나를 배려하고 있으니까요.

난 미영이하고 결혼해서는 꼭 이집에 살겠습니다. 이백평이나 되는 정원이 잔디와 관상수로 잘 가꾸어졌고, 방마다 이중 통유리를 달고 이토록 냉난방이 잘된 아담한 이층 양옥도 시내에서는 찾기 어려울 겁니다. 더구나 북한산성 아래라 공기도 맑고, 소음도 없고, 또 지하수는 수질검사 결과 아주 이상적인 식수로 판정이 났으니까요.

이집에 우리 식구가 살게 된 것은 할아버지의 공로지요. 할아버지는 시골 농업학교를 나오셨다는데, 시골서 농사 지으면서 자식들 학교에 보내기 어렵다고 시골 전답을 정리해 이 지축리에 이사오셨다 합니다. 처음 논밭 사들여 비닐하우스를 치고 화원을 경영하신 모양인데 그 무렵에는 화원으로 생계 유지도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다행히 그린벨트라는 것이 생겨 할아버지의 전답은 거기에 묶이지 않아 하루가 다르게 땅값이 뛰었다고 합니다. 전원주택 붐이 일어나고 점차로 이 일대가 화가나 조각가, 실업가들이 이백평, 삼백평씩 땅을 사 장원의 장주들처럼 호화주택을 차릴 때 할아버지는 좀더 오래 버티셨답니다. 이집도 따지고 보면 그 일부를 정리해 지은 것이라 하는데 아직도 땅이 이천평은 남아 있으니 할아버지는 부자라 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부자라 생각하면 북한산 같



고 그 고무하고 껌겨진 것으로 보면 준비하고 무어가 다를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집에 살게 된 것은 또 따지고 보면 순 우리어머니의 공로죠. 우리집이야 강남에 월세 준 27평아파트가 있긴 하지만, 그걸 집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겠습니까. 바퀴벌레나 우굴거리는 풀이 꼭 뉴욕 혹은 슬럼가 아파트죠. 우린 미아리에 그러저리 난독주택에 살았는데 순전히 내 교육문제로 빗까지 서가며 당시엔 꽤 비싸게 강남의 그 아파트로 이사를 갔던 모양입니다. 이 양육을 짓기 전에 할아버지는 허술한 부르크 집을 짓고 살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죽고나자 새할머니를 모셨죠. 여주에서 시집왔는지 할아버지는 새할머니를 여주댁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십을 갓넌 젊은 나이여서 나도 할머니라고 부르기는 솔직이 거북했었습니다. 혈혈단신으로 오직 할아버지를 잘 모시겠다고 언약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할머니를 이모라고 부르는 중학생이 하나 드나들었어요. 어머니가 수상쩍다고 뒷조사를 하고 결국 그애가 새할머니 아들인것을 밝혀냈지요. 할아버지는 그제야 정신이 변쩍 났지요. 자칫하다가는 씨도 모를 놈한테 평생의 재산을 송두리째 도둑질 당할 뻔했다고 노발대발하셨죠. "나는 영감 인품을 보고 내 몸 하나 의탁하려 했지, 이 집 두임냄새너는 재산 관 속에 넣고가지 않는다"고 항변하고 새할머니는 조용히 물러났어요. 새할머니

아들이 제법 사는 집 자식이고 보면, 그말도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한가지 속인 것을 보면 능히 할아버지 전 재산을 가로챈 음흉한 여자라고 할아버지보다 오히려 더 서슬퍼랬었습니다. 그래서 오형제 중 둘째인 아버지가 이 동네로 들어오고, 어머니 간청으로 전답을 조금 정리해 아늑한 이 집을 지었습니다. 큰어머니가 지금의 이 아름다운 저택을 보고 배아파 하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옛날 부르크집이 변소간 같다고 할아버지를 버리고 훌쩍 분가를 했는데, 그때 노한 할아버지 마음이 지금껏 풀리지 않아 '이젠 너에게 줄 건 아무것도 없다'고 큰 어머니에게 공언을 했으니, 자연히 이집은 나까지 우리집 대물림이 될 건 뻔하죠.

"애, 오늘은 몇시에 데리러 가라?"

독번동을 빠져가며 내 전용 운전수라할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나는 시간을 계산해 봅니다. 11시쯤이 어떨까? 오늘 강호 선생이 신곡을 하나 주어보겠다고 했는데 그걸 두시간 정도 연습하고, 몸이 근질근질한데 미영이랑 샤워나 하고 나오면 그쯤이 적당한지 모릅니다. 미영이, 미영이, 하니까 누군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애도 고3입니다. 그애랑은 독서실에서 기계키퍼를 마시다 만났는데, 우린 뜻이 맞았습니다. 골치아픈 학문이 뭐 그리 대습니까. 그래서 우린 독서실 바로 아래층 가요학원을 다니게 되었구요. 또 그 아래층 여관에도 들러 샤워도 같이 하게 되었지요. 우린 뚜엣으로 무대에서 성공할 겁니다. 강호 선생이 우린 아주 잘 어울리는 음색에 체격조건도 서로 잘 맞는대요. 독서실 건물에 가요학원, 여관, 디스코장이 들어 있는건 나같은 애들한테는 더 없이 편리한 일입니다.

"11시요, 아버지. 나 용돈줍 줘요."

"그래라. 체력이 있어야 공부도 하지. 저녁은 살먹어라."

아버지는 별 의의 없이 이만원을 꺼내 줍니다. 사실 아버지는 독서실 앞에서 세번이나 어떤 여자의 메시지를 잡아주는 것이 내 눈에 띄었는데, 번번히 같은 여자였지요. 좀 화장이 짙은 여자였는데, 난 그걸 어머니에게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은근히 대견해 하십니다. 그래서 용돈도 좀 후한 편입니다. 난 이 이만원이면 오늘 독서실 건물의 전과실을 끝낼 수 있으니 만족합니다. 강남까지 가는데는 완전히 서울의 남북을 횡단해야 하니 꽤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그틈에 나는 아버지 앞에서 줄 특권도 있습니다.

다. 강남에 간 체비처럼 강남에만 가면 꼭 대학에 합격하는 것으로만 아는 우리 부모도 한심합니다. 대학이 무어 그리 중요합니까. 유명가수들이 일류대학 나왔다는 것이 그리 어울리는 말도 아니구요. 난 미달 학과라도 전문대학쯤 가서 미영이랑 대학가요제나 나갈 정도면 됐지요, 뭘. 대학가요제에서 뽐히면 그동안 빛 못보던 강호선생도 일약 유명한 작곡가로 빛 볼겁니다.

미영이를 먼저 보내고 나는 선풍기 앞에서 좀더 땀을 식힙니다. 여관문을 같이 나서기는 아직 어리다고 남들이 손가락질 하니 어쩔 수 없는 일이지.

아버지는 독서실 옆 골목에 주차하고 잠이 들어 있습니다. 아버지도 화장실은 그 여자랑 샤워를 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아버지가 택시값을 주는 대신 나를 데리러 온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런 이유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차문을 열고 옆자리에 앉자 아버지가 화들짝 놀라며 시계를 봅니다.

“예정보다 늦었구나.”

아버지는 대견스럽게 내 등을 두드리고 시동을 겁니다. 이제는 내가 줄 차례입니다. 아무래도 샤워를 너무 길게 했나 봅니다.

저녁 식탁에 앉으니 어머니가 근심스럽게 아버지에게 말을 떴었습니다.

“복덕방 영감이 손님을 데리고 왔어요. 집 내놓은 일 없다고 하니깐, 여기가 신수복 영감택이 맞느냐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니깐 날 밀치고 뺑뺑 돌려 집 구경을 시키고 갑니다. 내 원, 기가 막혀.”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버렸습니다. 나도 가슴이 덜컥했지요. 여긴 미영이랑 내 보금자리가 될 곳인데.

“여보, 아버지 요즘 무슨 일 있었나?”

“무슨 일이 있겠어요. 오늘도 옛날처럼 노인정에 갔다 오셨고, 집 내놓은 일 있느냐니까 그저 시세나 알아봤다고 하시잖겠어요.”

아버지가 당장 수저를 내려놓고 할아버지 방으로 건너 갔습니다. 나도 밥맛을 잃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역시 팔짱을 끼고 아버지가 사라진 할아버지방이나 노려보고 있었죠. 한 십분이 지나자 아버지가 환한 얼굴로 할아버지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곤 곧 수저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도 참 능청스러우시긴. 심심해 집값 알아본다고 하시잖아. 괜한 복덕방쟁이 고생만 시키는구만!”

그제야 어머니도 표정이 풀고, 나도 안심하고 저녁을 들 수 있었습니다.

“여보, 혹 또 아버지가 심기가 불편할 수도 있으니 개소주나 한마리 내려다 드리지.”

아버지가 너털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는 이리 이사와서 전답을 정리해 이집을 짓기까지 무슨 불편한 건의사항이 있을 때는 으레건 개소주를 앞세워 들고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집이 완공되고, 마당만은 파고추를 심는 텃밭으로 삼겠다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고집을 꺾은 것도 개소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으로 개소주는 그럭저럭 우리집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보, 그걸 말이라고!”

어머니가 정말 퍼렇게 성이 나 아버지를 멍게 흘겨 봅니다. 아버지가 그런 어머니를 보며 또 너털웃음을 터뜨립니다. 구역질을 참으면서 개소주를 들고 다니던 어머니의 굴욕적인 모습이 떠올라 나도 웃음이 터지는 것을 억지로 참고 내방으로 도피하고 말았습니다.

나는 옷을 벗어 던지며 침대에 엎어지고 맙니다. 피곤합니다. 온통 피곤입니다. 오늘은 샤워를 너무 오래한 탓일 겁니다. 설마 날 욕할 사람도 있습니까. 우린 서로 사랑하고 분명 미래도 있습니다. …아, 잠이 쏟아집니다. 샤워를 너무 길게 하지 말아야 하는 건데….

복덕방 영감이 우리집을 다녀간 그날부터 며칠 동안, 어머니는 계속 저녁식탁에서 조금은 근심스런 표정으로 또 거렁뱅이같은 영감이 다녀갔다고 푸념을 했고 아버지도 조금은 긴장된 표정으로 할아버지 방에 들르곤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언제나 할아버지가 ‘능청스런 영감’이 되고 아버지의 너털 웃음과 어머니의 멍게 흘기는 안도감으로 끝나곤 했습니다. 사실 그때마다 나도 뭘지 모를 불안으로 조마조마해지곤 했습니다만, 그런 며칠이 지나자 복덕방 영감도 우리 집을 포기했는지 더 이상 어머니 입에서 그런 말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대신 할아버지가 외박을 하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대개 이박 또는 삼박씩 친구집엔 간다며 불쑥 한마디 내뱉곤 집안을 떠나 어머니를 좀 홀가분하게 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바람을 피울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옥신각신하는 것을 닫힌 문을 사이에 두고 귀기울이다 보면 나도 웃음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여하튼 할아버지는 ‘능청스런 영감’임에는 틀림없나 봅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할아버지의 생신날이 돌아왔습니다

다. 일부러 일요일을 택해 아버지의 오형제 식구가 다 모여더니, 애들까지 들끓어 집안은 말 그대로 장바닥이 되고 말았습니다. 선물도 산더미처럼 쌓여 선물에 일일이 누가 가져 왔는지 이름을 적어야 할 지경이었지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이번 생신에는 어느 것 하나 선물을 개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싸가지고 온 가족들은 좀 섭섭해 했습니다.

아침식사가 한동안 계속되고 술이 한창 거나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 모였으니 내 할말이 있다.”

할아버지가 손을 휘두는 바람에 일시에 방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나 역시 말석이나마 안방에 들 수 있어서 먼빛으로 할아버지를 쳐다볼 수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들 등록금 안대준 일 있느냐? 그만하면 교육은 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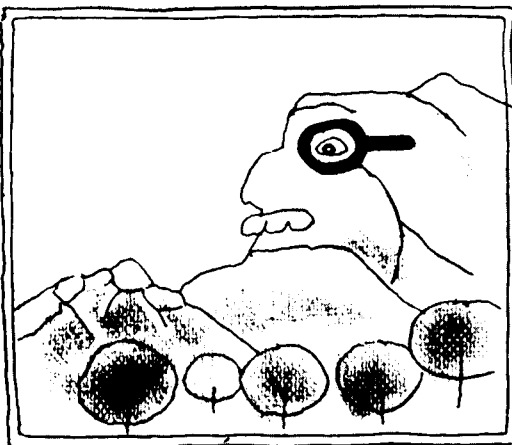
무슨 말인가하고 모두 눈이 휘둥그래졌습니다.

“내 며칠 시골에 다니면서 풍수쟁이 데려다 내 묘자리 하나 해두었다. 그리고 장례비도 은행에 공탁해 놓았다. 그만하면 너희 오형제 짐은 덜어준 셈 아니냐?”

아버지 오형제는 ‘죄송스러워시’어찌구 하면서도 누구나 짐을 던 듯 훌가분해 하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누가 장례 안치려 드릴까봐 그 고생을 하셨어요.”

불멘 아버지 말에 좌중에서는 웃음이 터져나왔고 모두들 술잔을 들었습니다. 나는 할아버지의 외박 비밀을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바람을 피울 수 있느냐 없느냐’로 육신각신하던 아버지 어머니의 말이 떠올라 나도 크게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니다.

그러나 그다음 정색을 하고 나온 할아버지의 말에 온집안이 아연했습니다.

“내가 이 집을 굴비 한 두툼에 팔려고 복덕방에 내놓기로 했었다. 허지만,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겠니. 그래서, 내 죽으면 이집과 전담부스러기는 다 양로원에 맡기기로 했다.”

이 무슨 날벼락입니까. 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와, 어머니, 아버지는 ‘굴비’란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온 집안에 그 지독한 냄새를 풍기면서도 할아버지 밥상에는 그림자도 안비쳤던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굴비 사다드릴게요 할아버지!”

내가 불쑥 일어나 비명처럼 고함 질렀습니다.

“찌끄만 놔둔 나가 있거라.”

할아버지가 낮은 음성으로 꾸짖었습니다. 불붙은 가족들의 날카로운 시선들이 온통 나한테 쏠렸습니다. 나는 그 시선에 밀려 문쪽으로 어기적거려 기어갔습니다.

“...내 이미 재산 헌납 공증은 끝냈다. 난 너희들한테 충분히 살아갈 만한 교육을 시켰다. 그러니 이제 내 사소한 재산은 넘겨볼 것 없다. 그리고 둘째애야 너도 이만큼 나한테 얹혀지냈으면, 이제 네집으로 가라. 여주댁이 나 죽을 때까지 돌보기로 했다. 그 여자도 그리 품성이 나쁜 여자는 아니더구나. 재산을 다 버린 걸 알고도 흔쾌히 오기로 했다. 그후에는 제갈길로 가기로 했느니라. 여주댁이 굴비 굵은 솜씨가 제법이더구나. ...너희가 내 말이 못미더우면 이 녹음기를 들어봐라.”

언제 준비했는지 할아버지가 녹음기를 상 밑에서 꺼내 상위로 놓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나 신수복은 오늘 여러 공증인 앞에서 유언을 남깁니다. 경기도 광주군 지축리 10번지의 대지 및 건물...”

아, 나는 더 이상 듣지 못하고 방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썩는 것 같은 비린내, 짠 냄새 풍기는 굴비가 이토록 나를 비참하게 만들 줄 몰랐습니다. 나하고 미영이는 어찌란 말입니까.

할아버지는 결코 굴비처럼 시든 영감이 아니었습니다. 마주 보이는 북한산성의 허물어진 성벽이 울울히 다시 쌓여 튼튼한 울타리를 치며 그 속에 바위산이 움쭙움쭙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바위산이 바로 할아버지의 얼굴이었습니다.